

지역 소식통

정읍시 보건소,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나서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시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00명 발생했는데, 특히 9~11월 사이에 6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11.0명)과 전북 평균(41.3명) 대비 매우 높은 발생률을 기록한 것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과 함께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바지와 긴팔, 장화, 모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돌봄 시민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정읍시가 9월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질병, 부상,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중장년과, 가족의 질병 등으로 돌봄을 담당하며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재가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비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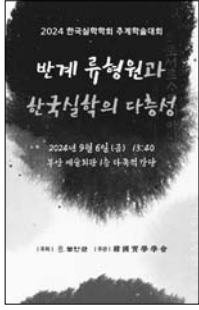
'반계 류형원과 한국 실학의 다층성'

부안군-한국실학학회, 6일 다목적강당서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국실학학회와 함께 오는 6일 13시 40분부터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반계 류형원과 한국 실학의 다층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반계 류형원의 저술과 사회 개혁론 연구를 통해 다층적인 한국 실학의 모습을 재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그가 남긴 실학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실학 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실용주의적 학문으로 특히 부안 우반동은 실학 거두인 반계 류형원이 20년간 거주하면서 그의 개혁 사상이 집약된 '반계수록'을 저술한 곳으로 한국 실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2부로 나눠



총 5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류형원 경세론의 신유학적 연원과 특징(윤석호, 부산대학교), △사회개혁론과 국방론을 통해 본 류형원의 국가인식(소진형,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발표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류형원의 화폐유통론(유현재, 경성국립대학교 교수), △18~19세기 조선학인들의 반계수록에 대한 반향(함영대, 경성국립대학교

교수), △류형원의 문학과 현실인식(임영길,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국대학교 김문식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희(다산연구소 대표), 문경득(전주대학교 교수), 이민정(서울대학교 강사),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 김보성(원광대학교 연구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류형원의 사상과 한국 실학이 가진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 부안은 반계 선생의 사상이 완성된 곳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실학사에서 부안이 갖는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전 · 혁신, 희망찬 정읍 건설'

확대간부회의 개최, 읍면동 현안 사업 등 시정 전반 점검 · 토론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개별 점검을 마친 후 재점검이 필요한 공약사업인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2026~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정읍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을 발굴해 보고했다.

더불어 읍면동에서 제안한 동진강 경관 조성 사업 등 15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읍면동 현안 및 민원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사업 절차 미이행으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시민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민들도 전북신보 고창지점 이용 가능'

고창군-전북신보보증재단, 고창지점 개점 따른 정책간담회

고창군과 전북신보보증재단, 고창군의회 금융기관(NH농협·전북은행)이 3일 오후 전북신보보증재단 고창지점 개점에 따른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한중만 전북신보보증재단 이사장, 이미정 NH농협은행 고창지부 부부장, 이미영 전북은행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북신보보증재단 고창지점은 지난 8월12일 우성화관 3층에 개점과 동시에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신축과 함께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다. 그간 고창군민들은 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위해 정읍지점까지 오가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고창지점을 방문해서 대출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 경영안정과 성장

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군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북신보 고창지점이 개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전북신보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조생종 벼 수확 현장에서 수확의 기쁨 나눠

심덕섭 고창군수가 3일 고수면 봉산리에서 2024년산 조생종 벼 수확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수확한 조생종 벼 '진광'은 지난 4월28일 모내기한 후 약21일 만에 수확되었으며, 정미를 거쳐 추석 전 소비자들에게 합쌀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장, 유덕근 고창농협 조합장, 유창희 쌀 전업농 연합회



장과 회원, 그리고 고수면 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며 벼 수확 일손을 보태고 농민들과 담소도 나누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고창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료모장, 상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긴 폭염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들의 땀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제354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회계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도의원 정수 확대

추구 건의안 등 2건 총 2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시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여 군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부안군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제3회 부안청년축제 6일 개최

2024년 제3회 부안 청년축제가 9월 6일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부안청년UP센터와 도로에서 개최된다. 부안군과 부안상권활성화추진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답게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공연팀과 서포터즈가 다수 참여하여 가을 뽕낼 예정이다.

또한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

원한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축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면 간식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운영하는 체험부스에서 파티메이크업 등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후반에는 축제의 열기를 더할 EDM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Large environmental campaign advertisement with a scenic background of a green field and trees. Text includes: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